

라온아띠란?

KB국민은행이 후원하고 한국YMCA전국연맹이 주최하는 '라온아띠'는 순 우리말로 '아시아의 좋은 친구들'이란 뜻의 대학생해외봉사단입니다. 2008년에 시작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10년 3월 3기 단원 30명이 6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으로 5명씩 한 팀이 되어 파견되었습니다. 5개월간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아시아적 감수성을 배우고 지속가능한 아시아적 연대를 꿈꾸게 되는 라온아띠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10년 9월 8일에 파견될 제 4기 라온아띠 단원을 5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라온아띠 홈페이지(www.raonatti.org)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실시합니다.

Q & A

Q 참가비용이 있나요? 참가비용은 최종 선발자에 한해 1인당 20만원입니다. 이 비용은 현지활동 종료 후 라온아띠의 커뮤니티 활동비로 쓰이게 됩니다. 이 외의 모든 항공료, 현지 생활비가 지원 됩니다.

Q 팀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5명이 한 팀으로 남자 2명, 여자 3명으로 구성됩니다.

Q 휴학을 꼭 해야 하나요? 라온아띠는 중장기 해외봉사단입니다. 단원으로 선발되면 총 6개월(국내훈련, 해외 현지활동 포함)동안 봉사단으로 활동해야 하므로 해당 학기를 최소한 1학기 휴학하셔야 합니다.

Q 해외에서는 무슨 활동을 하게 되나요? 각 파견국가의 코디네이터가 되는 YMCA나 타 NGO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이 다르기 때문에 활동 내용은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지역공동체의 이해, 아동 청소년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활동, 문화교류활동 등은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활동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모집에서 파견까지

2010년 4기를 기준으로

start!

2차 면접 **6월 29일**과
최종발표 **7월 6일**



국내훈련 2.
아시아시민사회와 국제자원
활동의 이해 **7월 15~19일**



발대식과 출국 전 캠프
9월 6~8일
마침내 출국! **9월 8일**



인터넷 지원 모집
2010년 5월 17일~6월 16일
1차서류심사 **6월 22일 발표**

국내훈련 1.
양평개척자들 **7월 13~15일**



국내훈련 3.
지역 NGO 인턴십
7월 19~31일



현지활동 (5개월)
그리고 귀국
2011년 2월 8일



라온아띠3기가 보내는 메시지

지난 3월 3일 6개의 나라로 출국한 라온아띠3기 30명은 현재 "생애 가장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5개월의 현지활동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단원들은 자신들이 지내는 마을에 친숙해지고, 그 나라의 문화에 익숙해지고, 각자가 펼쳐나가는 프로젝트에 능숙해지고 있다. 그들이 라온아띠4기들을 기다리며 한국으로 보낸 메시지를 공개한다.

말레이시아 페낭

우리 팀은 'Bethany Home' 이란 시설에서 댄스, 노래, 풍선아트 교실 등의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외에도 라이트 하우스 북마크 만들기, 급식 주방보조 활동, 풍선아트를 통한 베타니 홈 기부금 모으기 프로젝트 등을 진행 중입니다. 어려움을 가진 친구들의 손을 잡아 주면서 더불어 우리도 함께 소소한 행복을 느낍니다!

베트남 호치민

양평에서의 훈련은 영하 23도, 베트남 호치민은 영상 37도. 라온아띠를 통해 최고의 겨울과 여름을 보내고 있어. 요즘 우리는 유치원 꼬마들과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이제 곧 월드컵의 열기가 가득할 6월. 우리 아마도 축구를 사랑하는 베트남친구들과 아시아로 하나가 될 듯해. 우리의 뜨거운 열기가 줄 사람은 여기여기 모여라!

스리랑카 모라투와

승찬: 지금 웃고 있나요? 그럼 함께 웃어요~
선화: 남보다 나를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 글만 읽고 있지 말고 얼른 자원서 작성하세요!
기연: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바이러스 걱정엔 노심초사, This is Sri Lanka!
금선: 끌리면 오래! 오는 방법은? 오직 진실!
하현: 라온아띠 포스터를 보며 고민한 시간이 지금 달콤하고 씁쓸한 시간이 되고 있어요.



태국 치앙마이

사워디카, 여기는 태국입니다! 지구온난화를 멈추기 위한 캠페인과 환경 교육을 태국 청소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잘 조직된 치앙마이 YMCA의 주요 프로그램을 도와 진행하고 있으며, 고산족 전통마을과 일반 가정 홈스테이를 통해 태국문화를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미소 짓는 태국인 특유의 긍정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통해 인생을 천천히 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시엵립

뜨겁지만, 따뜻한 캄보디아. "캄팀"은 45도의 열기 속에서 결식아동들을 위한 밥퍼와 빵퍼나눔을 주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을 위한 "아띠학교" 운영 및 교민 자녀들을 위한 "한글학교" 지원활동을 통해, 아시아 속의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스라이, 봉쁘렘! 쏘 마옥 캄쁘치!" (언니, 오빠! 캄보디아로 오세요!)

필리핀 누에바에시자

필리핀에서도 가장 뜨거운 도시 까바나투안에서 다섯 달을 살고 있는 필리핀팀. 관광도시도 아니고, 유학생도 적은 이곳. 높은 빌딩 하나 없이 사방으로 논밭이 드넓게 펼쳐져 있는 이곳에서 매 순간이 절실하고 행복한 우리. 이곳에서 만나는 모든 마을 사람들과 친구가 되면서 지속가능한 아시아 사회를 상상하고 있습니다. 청춘의 뜨거운 열기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